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EWHA HOUSTON 2016

The Glorious Story

November 3 - 6, 2016 | Hilton Houston Post Oak





CONTENTS

- 4 인사말 총장
총동창회 회장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 8 이화인의 글과 사진 모음
- 18 지회 소식
- 34 동창회 장학금 소식
- 35 장학기금 현황 및 북미주 지회장 명단
- 36 2016 북미주연합회 총회 일정
- 37 2016 북미주연합회 총회 참가 신청서
- 38 CRUISE 안내



The Glorious Story





The Glorious Story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경희

사 랑하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총장 최경희입니다.

2016년 봄, 캠퍼스 곳곳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찬 학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가 1886년 스크랜튼 선생님께서 정동의 한 옥교사에서 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13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으로 시작한 우리 학교는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이화는 모두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멀리 보고, 더욱 강건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3,600석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강당을 세운 것을 보면 우리 선배들의 기상과 도전 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이화는 현재 법학, 공학, 의학, 약학, 예체능계를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14개 단과대학, 15개 대학원, 72개 전공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으며, 든든한 21만의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화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

지금 이화와 모든 대학들은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고, 과거의 어려움과 다른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배님들의 도전과 미래를 보는 안목을 배워 왔기에 또 한걸음 앞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키워 학생들이 다양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뇌인지과학, 화학신소재공학 등 새로운 전공을 신설했으며 학문의 기본인 교양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호크마 교양대학을 설립하였고, 올해 신산업융합대학을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생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2,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숙사를 건립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의 역사를 계승하여 한국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 글로벌 의료원 새 병원을 서울 마곡 지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

이화의 수많은 최초와 최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의 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화는 동문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화에 대한 지지는 나아가 여성을, 여성에서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지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동창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후학들은 이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면서 미래의 인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30년을 내다보며 준비하여 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북미주에서도 한결같은 한마음으로 이화의 발전을 응원해 주시는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화의 앞날과 우리 모두의 미래에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김 영 주

부 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거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가 휴스턴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년 전인 2004년, 저는 동창회 임원으로서 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참석했던 네 번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동창들의 열성과 노고가 가득 담긴 행사 진행으로 재미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스턴에서 열린 총회는 모든 임원들이 최선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하던 모습이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고생하셨던 김성혜 회장님, 이영일 준비위원장님, 신영일 총무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또한 여전히 휴스턴지회를 위해 열심인 동창들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레고 기쁩니다. 김명옥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휴스턴 지회 동창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낼 이번 총회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 기관’에서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도약을 꿈꾸는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 창립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mind Chapel’입니다. 이화동창들은 ‘대강당 채플’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학교를 떠난 기간이 길수록 모교를 그리워하며, 내 생애 가장 빛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동창도 많습니다. 그 마음을 읽은 최경희 총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개교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동창을 위해 특별히 5월 30일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Remind Chapel’이 열립니다. 동창들이 ‘Remind Chapel’을 통해 나의 신앙, 나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나는 이화인 상’을 제정하여 모교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인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빛나는 이화인 상’은 이화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과학, 경제, 의료, 법률,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등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21만 이화동창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추이자 주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화동창들의 활약상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동창회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북미주 동창들이 현재 1년에 두 번씩 받아보는 <이화동창>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60세 이상 되는 동창에게는 예전과 같이 책자로 보내드리고, 컴퓨터와 친숙한 젊은 동창에게는 새로 만들어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절약되는 우송료는 모교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총동창회는 언제나 동창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총동창회는 모교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최경희 총장님과 함께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 편지 덕에, 제 능력으로는 해낼 것 같지 않은 총동창회 일을 하나갈 수 있음에 저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동창들과 함께 하길 빌며, 북미주지회연합회 휴스턴 총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김명옥** (경영 75)

사 랑하는 이화여대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총동창회 지회연합회 회장 김명옥입니다.

동창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
주지회연합회 총회를 휴스턴에서 열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합니다. 특히 모교의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휴스턴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휴스턴은 텍사스주의 가장 큰 도시이며 미국에서 네 번
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
러져 사는 곳입니다. 30여개의 에너지 회사의 본부가 있
으며, 1958년에 창설되어 매년 평균 92.28억달러(9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주 탐사 활동과 우주선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자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8억의 환자가 방문하고 18
만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
이 병원과 MD Anderson 암치료센터, Texas Medical
Center가 이 곳에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위하여 저희 휴스턴 지회에서는 "Ewha,
The Glorious Story"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
니다. 총회를 통해 동문 여러분을 만나게 됨은 이화의
자람이며, 또한 저희 휴스턴 동문들에게는 기쁨이 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성 인재의 불모지와 같았던 1886년 미국 선교사
Mary F. Scranton의 자택에서 1명의 학생으로 시작하
여 현재 21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화의 빛나는 업적
과 동창들의 사회적인 헌신 봉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이 빛나는 이화의 업적과 역
사를 공유해 오신 동창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휴스턴 총회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함께 하시어 젊
은 날의 꿈과 패기를 추억하며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김정희 (약학 79)

이 화여대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김정희입니다.

2016년도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휴스턴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애틀랜타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화!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휴스턴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올해는 특히 모교의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남부 산업과 문화를 자랑하는 휴스턴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세계 정상을 향해 뻗어가는 이화여대의 발전상을 볼 수 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북미주 곳곳에서 항상 이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화 여대

동창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랑을 다짐하며 모교와 사회에 대한 사랑을 펼치는 귀한 자리입니다.

올해도 휴스턴 총회에 모두 참석하시어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시고,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그리면서 이화인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이화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 더욱 발전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되도록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휴스턴 지회의 김명옥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분들께서 'EWhA, THE GLORIOUS STORY'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휴스턴에서의 소중한 우리들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휴스턴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



오솔길



노운정
(워싱턴 디씨지회, 영문 64)

한 앞 두앞
떨어지는 낙엽 밟으며

아련히 이슬 맺힌 까만 눈동자들이 스쳐간다

황토길 뽕얀 먼지 속을 달리는

버스 뒤꽂무니를 손 흔들며 따라오던 아이들

굽이굽이 산골마을 강원도 고성

계몽반을 반기는 구리빛 미소들

오솔길 따라 호롱불 길잡이와

씩씩 잠든 아이 업고

땀 냄새 젓 냄새 풍기며 글 배우기에

밤 지새우던 아낙네들

산골짜기를 헤매며

산딸기 머루 다래 들꽃 따다주던 아이들

"선상님!"하며 까만 두 쪽의 감자떡을

수줍게 건네주던 아낙네

순박하고 진솔하고 순정한 산골 인정

지금도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대학 일학년, 처음 계몽반 따라갔을 때

오솔길 산등성이 넘던 옛날의 추억 *

Wake-up call

윤혜순 (휴스턴지회, 약학 59)

제가 80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80이면 땅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집 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 고요. 좀 서늘한 말이지만 그런대로 수긍이 가는 말이었어요. 생리학적인 면에서는 사물에 대한 느린 반사 작용, 언제나 낮이 선 IT 문화에 대한 이질감, 때로는 도전정신이 다 말라 버린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암담해질 때 등등... 그런데 유난히도 햇살이 따스한 날 휴스턴 동창회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E-mail로 동창회 명부, 행사소식 등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해 왔어요. 야! 이번 회장단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60년 전 김활란 총장님 말씀이 생각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시간에 Chapel에 함께 하지 못한다 해도 이 예배시간을 잊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Harmony를 이루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활란 총장님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다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곤 했습니다.

지금 김활란 총장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동창회를 잊지 않고 마음으로 늘 같이 할게요. 동창분들, 전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창회를 이끌어 주신 회장단, 임원들,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가실 후배님들, 동창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



휴스턴의 아름다운 추억

김희숙 (남가주지회, 약학 62)

2016년 북미주 총동창회가 휴스턴에서 열립과 동시에 연합회 잡지에 실을 동문들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오래 전에 남편 이병희 목사님이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8년 동안 아름답게 사역했던 추억들이 주마등 같이 내 마음에 스쳐갔다.

그 당시 대우, 현대, 쌍용,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에서 파견된 주재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스턴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 체류 기한이 약 3년 정도였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미국에 있는 동안 한 곳이라도 더 구경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했으므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필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주재원의 가정을 찾아가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주중에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재원 부인은 기뻐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주재원 부인들을 초청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나자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재원 부인들도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사모님, 그 주재원들은 아무리 성경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도 3년만 되면 다 한국으로 떠나갈 사람들인데 왜 쓸데 없이 시간과 노력을 그들에게 투자를 하십니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온 주재원들은 한국에 있는 각 기업에서 고르고 뽑아서 보낸 엘리트들로 만일 그들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한국에 다시 나간다면 각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매주 이들을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 있는 주재원들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성경공부를 계속 하였다.

그 후 주재원 부인들은 말씀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변화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세례 준비 공부를 하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공부를 하면서 남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 해주셔서 남편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편들도 말씀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주일이 되면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주재원 부인들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도 주일날 애들과 함께 교회 나갈시다” 하면서 남편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한 주재원은 미국의 체류기간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제가 미국에 주재원으로 3년 동안 머물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교회에 나와 믿음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저의 부모님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장로가 되어 설 것입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였다.

남편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나갔을 때 만나보니 휴스턴에서 주재원으로 있었던 그들 중에 몇몇 남편들은 각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중직을 맡아 섬기고 있었고, 아내들은 권사님들이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봉사를 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울산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휴스턴 한인교회 울산구역”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비록 일하는 회사는 서로 달랐지만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그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지금도 모여 중보기도하며 믿음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도 아름다운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믿지 않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필자가 이대 약대 3학년 때에 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대강당 세멘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축복을 받게 되었다.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준 사랑하는 모교 이화여자대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계속 발전부흥하도록 오늘도 두 손 모아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김태열 (뉴욕지회, 사회사업 59)

나의 일생을 이끌어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8절 말씀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955년 이대에 입학하여 김옥길 선생님은 기독교 문학 시간을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강의하셨고 이 복음서들을 읽어 가는 것이 숙제였다. 읽고 또 읽고 하여 내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말씀이 바로 위의 구절이었다. 당시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는 못하여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로 이해가 되었다.

나는 북한 출신으로 1950년 12월 4일 피난길에 올랐다. 내가 살던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발, 산 넘고 예성강과 임진강을 건너 100여 마일 밖에 안되는 서울까지 무려 3주간이나 걸려 성탄 이브에 도착하였다. 6.25 전쟁으로 인한 수 많은 고아들, 자녀 잃은 부모들의 처절한 부르짖음, 전쟁 후의 폐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지라는 각오가 생겼다. 더욱이 나는 어렸을 때 홍역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는 하였으나 그만 얼굴이 엷고 말았다. 어머니는 항상 딸의 얼굴이 안쓰러워 “너는 장차 공부 많이 하여 성공해서 살아라”가 교훈이었다. 대전여고를 졸업한 후 ‘공부 많이 하기 위하여’ 모교 사회사업과에 지망하였다. 재미있었던 것이 입학시험 때 40여명의 응시자가 개학 때는 86명으로, 졸업 때는 24명으로 줄었다. 1950년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미국 유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교 시절 진선미의 기숙사에 살았다. 김봉순 사감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시내 영어 학원에 다녔는데 밤에 돌아올 때는 앞마당의 멍멍이가 산이 울리도록 짖어댔다. 밤 10시가

지난 후여서 정문은 잠기고 청소하던 아저씨의 방으로 살살 기어 들어가 2층 내 방으로 질주했다. 와!

대학교 4학년 때 드디어 문교부 유학 시험에 응시하여 국사는 단번에 통과되었으나 영어는 낙방이었다. 당시 사회사업과 지도교수이셨던 김옥길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려 한 주에 한 시간씩 영어 개인 교습도 받았다.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도 하루 아침에 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후 영어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5번 낙방한 후 6번째 겨우 합격하였다.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2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꾀대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영어공부에 열심을 다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의 손을 얹어 주셨다. 할렐루야!

1961년 가을, 드디어 그림고 갈망하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University of Minnesota 사회사업 대학원으로!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모교시절 책 한권 읽어보지 않고도 항상 최우수 성적을 받던 내가 여기서 과목마다 수백 페이지의 reading 숙제, 월마다 치루어지는 중간, 기말 시험, 이해할 수 없는 강의에 노트 필기는 불가능, 하루에 2-3 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강의실은 나의 제 2의 침실이었다. 당시 ‘C’ 학점 셋이면 대학원에서 쫓겨나고 미국에서 추방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사업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64년 6

6.25 전란시
부산 교사
단독 개교



월, 영예의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이 3년간 나는 구하고 노력하고 절대 뒤돌아 보지 않고 열심을 다 하였다. 만약 내가 문교부 영어시험을 6번이나 치루지 않았더라면 당장 귀국하였을 것이다.



좌: 김옥길 총장님
우: 필자

이 6번의 시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와 도전정신을 키워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으리라.

나는 미국 유학시절, P.E.O.라는 기관으로부터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조

건은 졸업 후 귀국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 나는 친구의 초청으로 학교를 졸업하기 전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찾아간 친구의 집 현관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미남은 아니지만 첫 눈에 반했다. 나는 장학금 기관의 허락을 받고 귀국 대신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를 위하여 주보와 월보도 쳐주고 주일이면 밥과 반찬은 물론 가끔 용돈도 주었다. 자주 만나야 정이 드니까! 나는 거머리같이 그를 추적하여 3년만에 약혼사진(?)도 찍고 결혼 반지도 사게 되었다. \$200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 돈으로 샀다. 지나고 보니 여자의 결혼 반지를 누가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 3년 동안 구하라 한진관, 찾으라 한진관, 두드리라 그대의 마음을! 그 나의 남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내가 심은 노력을 외면치 않으시고 드디어 그를 나의 신랑으로 1966년 9월에 허락하셨다. 금년은 wedding march가 울려 퍼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결혼 후 우리는 1969년 7월 뉴욕시 퀸즈라는 곳에 첫 한인교회를 개척했다. 한진관 목사는 이민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인들을 위하여 1972년 봉사센터도 설립하고 교회는 영적인 장소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도 쓰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1977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교회도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17년 간 사용하던 미국교회를 떠나 천만불을 들여 3천 7백평의 대지와 2천석의 성전, 60여개의 대소 교육실, 실내 농구장 겸 교인들의 식당, 자녀들을 위한 2층 건물의 교육관 등을 건축하게 되었다. 천만불의 헌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와 금식은 무려 10여년간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였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두들겼는지 하나님은 참다 못해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응답해주셨다. 한진관 목사님과 나는 이 교회에서 36년 간을 섬기고 은퇴하였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학창 시절에 얻어진 지식, 기숙사 생활에서 주어진 지혜와 경험, 모교 본관 4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으리라! 이화는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저 지나쳐 버리게도 된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는 일생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영적 공식을 나의 생활에 접목시켜 말씀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했다.

학창 시절 4년간의 김봉순 선생님의 아침 식사기도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김활란 총장님의 대강당에서 본인이 총장이 되기까지의 간증! 엄격하면서도 자상하셨던 김옥길 선생님의 기독교문화 강의 등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진들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이화여, 주 안에서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

P.S. 저의 간증집을 원하시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열 / T. Han
42-26 Auburndale Lane, Flushing, NY 11358
Tel. (718) 463-2824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박순혜 (보스턴지회, 국문 73)

이 생은 끝없는 만남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서 슬프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서 괴롭다고 한다.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결단을 내려, 작년 가을 애틀랜타에서 열린 '이화여대 총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갑자기 가게 되니 친한 동창들과 연락이 안 되어 특별히 만날 친구들도 없어, 행사가 없는 시간에는 호텔 옆 산책로를 걸었다. 구르는 낙엽을 밟으며 낯설고 호젓한 길을 혼자서 무심히 걷고 있었다. 100미터쯤 앞에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낙엽과 같은 빛깔의 그림같이 서 있는 사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나무로 만든 조각이겠지! 설마 살아 있는 사슴은 아니겠지" 생각하며 한참을 뒤돌아 오다가, 갑자기 내 시력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다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발길을 돌려 사슴이 있던 자리를 찾아 조심조심 걸어가 보았다. 그러나 사슴은 온데 간데 없고 마른 나무 가지들만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슴도 나를 보고 놀라 장승처럼 눈도 깜짝이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다가 자기 갈 길을 갔나 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신선한 만남이었다.

그날 저녁, 며칠 간의 행사를 끝내는 마지막 만찬 후, 서로 테이블을 오가며 인사를 주고 받는 시간이었다. 수십개의 테이블 중에 내가 앉은 바로 뒷 테이블의 사람들이 선 채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숙한 이름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어!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고개를 들어 그 아줌마의 얼굴을 보니 알 듯한 모습이었다. 45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헤어진 후 이제야 처음 만난 동창이었다. 전공이 달라 1학년 때 보고 못 본 것 같다. 그 친구와는 그냥 동창이 아니라 국민학교 6년 동안 같은 반을 했고, 당시 그 친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교 이화대학에서 가르치시고 계셔서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

였다. 미국에 산다는 말은 들었고 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서로 세월이 지나며 많이 변한 얼굴을 마주보며, 기억 속의 옛날 모습을 찾아 보았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야 기며 너무나 알고 싶은 사연들이 많았다. "어머!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나를 동창회에 오게 하였구나!" 그 친구는 총동창회에 처음 참석했고, 나도 10여년 전에 딱 한번 참석한 후 정말 오랜만에 간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반가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을 잃었다. 그 때 만찬장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음악에 맞추어 우리는 춤을 추었다. 우리 내년 '휴스턴'에서 다시 만나자. 나이 드니 친구가 그림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안타깝고 애뜻할 뿐이다.

올해 가을에 있을 '휴스턴 동창회'에서는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인 옛 친구들 네 명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뜻 밖의 친구가 또 나타날까 기대하며, 우리는 이제 할머니 모습이 되어 반갑게 다시 만나리! *

이화의 봄



“동창 친구야 반갑다”

내가 사는 아파트

박명자 (하와이지회, 영문 67)

내가 사는 아파트는 매우 오래된 낡은 아파트이다. 너무 낡아서 부엌과 응접실을 아무리 쓸고 닦아도 빛이 안난다. 소위 말하는 서민 아파트다. 이웃 또한 더도 덜도 아닌 나와 비슷한 분들이다.

자주 고급 콘도에 사는 분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 고급 콘도에 가면 가구는 물론이고 또 그에

이화여대 대강당



맞게 흐르는 음악 또한 감미롭다. 창밖으론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 시원한 응접실에서 대접받는 우아한 찻잔에 향 좋은 차를 마시고 있으면 내가 마냥 귀부인이 된듯

흐트해진다. 그러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돌아오면 난 현진건의 빈처가 된다. 사람들과 차 마시며 담소하기 좋아하던 내가 응접실이 너무 협소해서 친구 초대가 꺼려진다. 방엔 책들만 너절하게 널려 있고 소파 또한 낡아서 보푸라기가 여기저기 보인다. 그런데 이곳엔 창문을 열면 맹고 나무와 그곳에서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구름과 바람이 있다. 어쩌다 새들이 보이지 않으면 외로워진다. 한밤에 방을 열고 나가 체조라도 하면 밤하늘의 달도 웃고 별도 웃는다.

언젠가 급한 소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듣고 하던 일 마무리 하느라 좀 지체하다 뛰어나갔다. 헌데 이미 우체부가 차를 몰고 이웃으로 가고 있었다. 저절로 “아이구 아이구 저걸 어쩌나...” 손을 휘저으며 우체국 차를 뒤쫓았다. 이를 본 아파트 관리 아저씨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던지고 우체부 차를 뒤쫓기 시작했다. 마침 이웃 또 그

다음 이웃집에 정차한 우체부 아저씨를 붙잡아 내 아파트 번지 소인의 소포를 찾아 들고 오셨다. 그 뛰어가던 모습이 어찌나 우습든지... 너무 우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고마웠다. 당일 꼭 필요했던 그 소포를 안고 웃으며 내게 전해주던 베트남 아저씨. 오늘 아침 빵집에서 막 새로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을 사오는데 이 베트남 아저씨가 내 방 앞 난간을 닦고 계셨다. 따끈한 빵을 냅킨에 싸 드리고 지금 드시라고 했더니 정말 맛있다고 웃으신다. 오늘은 건너편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소리가 유별나게 싱그럽다.

6살짜리 손녀의 자랑소리 “할머니, let me show you this. Mrs. Uehara put here “Wow.” 스펠링 백점이란다. 픽업하러 가며 입가에 미소가 진다. 레이 찰스의 노래가 들리는 내 작은 아파트. 귀부인은 못되는 나는 부엌 창문을 통해 흐르는 부드러운 햇볕에 만족하며 빈치임을 인정한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



이화여대 총동창회



험거워지고 싶은 날



장효정
(남가주지회, 영문 68)

나 오늘
과속으로 험돌던 바퀴 멈추고
전화도 끄고
마음도 끄고
모든 플러그를 뽑으며
새털처럼 가볍게 풀어지고 싶다

고슴도치처럼 까칠하게
세상 향해 세우던 경계의 가시들
차르르 내리고

맹물 채운 풍선처럼
쉽게 터져버리는
애지중지 만지작거리던 희망
돌맹이 떨어뜨리듯 내려 놓고

과욕으로 늘 단내가 나는 내 영혼
그 낭비도 털어내며
거품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미움도 벗고

뒤틀 모습이 허전한 사람과
카프카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며
향맑은 와인 한 잔 나누고 싶다.*

이화인의 품위

김현순 (캐나다지회, 피아노 56)

품 김에서 오는 느낌은 표현하기 힘들다. 문화 환경에서 받은 영향, 또한 개인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품위는 인간 본연의 복잡함을 다시 실감하게 한다.

50년을 캐나다에 살면서 많은 파티에 참석을 했다. 50년을 살다보니 한국 사람도 서양 사람도 아닌 중간 사람이 되어 버려서 한국말도 멋있게 구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화여대 성탄파티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편하고 즐겁기만 하다는 것이다. 무거운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참석한 동문들도 마음 가볍게 즐기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 어떤 형태로 옷을 입고 오든 자신이 만족하고 편하면 되는 것이니 멋있기만 하다. 함께 따라온 남편들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무도 주저하는 사람 없이 움직이고 춤추고 즐기고 있다. 어느 모임에 가서 2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까? 오늘을 소중하게 지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화동문들만이 지니고 있는 품위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살벌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이화동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흐뭇해진다.*

초창기
캠퍼스를
기리며



South Texas에서 조용히 살아온 한 이화인의 이야기

김동월 (휴스턴지회, 영문 60)

"Everybody has a story to tell." 이라는 말처럼 이화여대 졸업장을 가지고 남부 텍사스에서 살면서 미국 초등학교의 한 교육인으로 1961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사회, 미국 교육계의 변화를 경험한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2세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1960년대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 특히 남부 텍사스, Corpus Christi에서 아시아인들의 미국 사회 진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961년도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장을 가지고 University of Texas, Austin 대학원에 유학을 온 첫 한국인 여학생으로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도에 교사 부족으로 Texas Education Agency에서 이화여대 졸업장을 인정해 주면서 Temporary Teaching Certificate를 수료했고 그것으로 미국 초등학교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Kennedy 대통령과 Martin Luther King Jr.의 암살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Civil Rights Movement(인권운동)이 확산되어 미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교육계는 이중언어 교육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고 처음 5년은 아시아계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학부모들과 언어적인 문제, 미국 사회에의 적응 등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르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Mentor 교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Just call them: Boys and Girls"라고 가르쳐 준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도 좋은 교장 선

생님, Eugene Curington을 만나 교직에 있는 동안 제가 아시안인 것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받는 차별과 무시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Texas State Teacher's Association 교육단체가 제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도 받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을 찾으려서 날 보고 "Where is the real teacher?" 라고 물었는데 은퇴할 때 즈음에는 "Now, you are in good hands!" 라고 할만큼 미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미국 사회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큰 특권으로 느낍니다. 미국 역사상 격동의 시기 가운데 항상 내 행동이 후배 이화인이나 아시안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모범적으로 교편 생활을 33년을 한 후에는 은퇴하였고, 1996년에는 Corpus Christi Independent School District, Region II of Texas에서 "Teacher of the Year"를 받았고 한국 정부로부터 "해외 모범 교육자"라는 명예로운 상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미국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73세의 나이로 평생 원하던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개인의 성취와 미국 사회에 공헌하게 되기까지 이화여대의 졸업장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개인으로는 이화인인 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사회 발전에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남편 Jimmy Roberson과 43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세 아들을 키운 어머니, 미국 사회에 공헌한 한 교육자, 그리고 한국 전래동화 작가로서 이화인의 금지와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인종차별이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Land of opportunity" 인 미국 사회에서 우리 2세들이 열심히,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며 온몸으로 뜨겁게 환호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

제 저서 'Korean Folktales' 구입을 원하시면
361-643-6867 혹은 dongwook@yahoo.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민족연대
농촌계몽에
앞장 선
7인의
전도대



풍운아 윤치호의 諧謔

윤경남 (토론토지회, 영문 58)

오
 이
 머나 해학(諧謔)은 얼핏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희극의 가면 뒤에 비극이 숨어 있듯이 해학은 재미 이상의 풍자와 비판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고차원의 문학형태이다. 지난 해 가을에 열린 필자의 출간기념회 작품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의 주인공, '시대를 앞서간 지성인이며 애국가 작사자인 윤치호'의 인생은 아이러니와 해학이 담겨있다. 남감리교회를 한국에 도입하고, 문화유산의 가치가 돋보이는 60년에 걸친 '윤치호 영문일기'를 쓴 윤치호 선생님은 또한 시대의 풍운아이기도 했다. 러시아 황제 대관식사절단에 민영환과 함께 다녀온 후, 윤치호는 개성에 남감리교회가 주도하는 한영서원을 설립하여 현실적인 산업교육을 장려한다. 그 외에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 교장으로, YMCA 회장으로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 이사로 활동한다.

1935년, 정동에 있던 이화여전을 신촌에 새로 석조 건물을 짓고 이전할 때의 유머러스한 일화가 있다. "이화학당은 1885년에 북감리교 여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설되었고, 이화학당이란 이름은 명성 황후가 지어 준 것이었다. 1888년 정동의 작은

기와집에서 단 일곱 명의 학생을 데리고 시작한 이화학당을 1920년에 근대식 양옥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학교로 만든 것은 역시 북감리교의 여선교사였던 미스 프라이였으며, 그것을 다시 1925년에 전문학교로 확장하고 1935년에는 신촌에 대규모의 석조 건물을 지어 오늘의 이화대학으로 만든 것은, 감리교의 초대 목사로 정동교회와 배재학당을 창설한 아펜젤러 1세의 따님인 미스 앨리스 아펜젤러의 노력과 헌신에 의한 것이었다. 이화학당의 새 건물을 짓는데 들인 아펜젤러 교장의 비상한 노력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기금까지 얻어온 스와인하트 선교사의 공적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내부의 장식과 비품을 마련하자면 돈이 더 필요하므로 스와인하트씨에게 다시 한 번 미국에 가서 기부금을 더 얻어 달라고 졸랐으나 미국도 기부금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이화의 발전 역사



이화인의 글과 사진

졌다고 잘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화의 김활란 박사는 윤치호 선생을 앞세워 각 신문사를 찾아 다니며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스와인하트씨에 대한 위로와 감사회를 베풀고 다시 한 번 미국에 다녀오도록 격려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수일 후에는 종로3가에 있던 명월관에서 스와인하트씨에 대한 감사와 오찬회를 베풀게 되었다. 그날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백여명의 각계 대표와 언더우드 박사 이하 미국인 남녀들도 많이 왔었다. 주빈석에는 스와인하트씨가 앉았고 주인석에는 좌옹 윤치호 선생이 좌장으로 앉아 있었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자, 만당의 박수 소리와 함께 좌옹 윤치호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스와인하트 씨가 미국에서 기부금을 얻어온 덕택으로 우리 이화의 새 교사가 완성된 것을 자축하고 스와인하트씨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고유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좌옹은 고상하고 우아한 영어로 나직한 목소리로 차근차근하게 말하는 것이 마치 무슨 음악이나 듣는 것 같았다.

“조선조 시대의 어떤 어진 임금님이 정치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임금님은 마음이 착해서 자나깨나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여 틈만 있으면 벼락 거동을 잘 다녔는데, 하루는 거동 행차가 동대문 밖을 나서서 어떤 시골 고을에 당도하니, 화광이 충천하고 군중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 공기가 매우 수상하였습니다. 거동행차를 멈추게 하고 사정을 알아보게 하니, 그 고을의 군수가 너무 노략질을 하므로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크게 노하여 신하를 보고 당장에 그 놈을 잡아 오라고 하니, 미구에 광 속에 숨어 있던 군수가 왕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봐라, 군수란 백성의 부모와 같은 것인데, 얼마나 백성을 들볶았기에 이지경이 되었느냐?’ 임금이 꾸짖으니 땅에 엎드려 대죄하고 있던 군수는,

‘예,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소인에게는 한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대체 너의 소위 사정이란 무엇이란 말이나?’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에게는 딸이 다섯이 있으나, 그 딸들을 시집보내려면 돈이 이만저만 들지를 않고 전하가 주시는 국록으로는 태부족이므로 백성의 재물을 조금 굶었더니 그만 이 지경을 당했습니다.’



1943년, 이화여전재단이사회, 좌 2번째로부터 김활란 교장 - 양주삼 총리사 - 윤치호 이사

그 말을 듣자, 임금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임금에게도 딸이 셋이나 있어서 그 딸들을 시집보낼 생각을 하면 한 나라의 임금인 자기로서도 걱정이 되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의 수령쯤으로 딸이 다섯이나 된다니 오죽이나 걱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왕은 노여움을 푸시고,

‘네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정상이 딱하니 특히 용서하겠다. 차후에나 조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좌옹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소리를 높여서, “그런데 우리 이화학당에는 딸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 애들을 잘 공부시켜서 시집을 보내자면, 돈을 이만저만 굶지 않고서는 아니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스와인하트씨는 다시 한 번 미국에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우레같이 일어났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냐? 어떤 선교사 부인은 ‘딸 가진 부모의 걱정은 동서양이 같군요’라고 연방 그 이야기를 수첩에다 적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날 좌옹의 재치있는 이야기가 주효했던지, 드디어 스와인하트씨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많은 기부금을 얻어왔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이화대학 건물이 그 내부 장식까지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 윤치호문화사업회선집1호〉

어두운 세상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학교의 발전을 도운 멋진 해학의 사례이다. *



알래스카

회장 김명순 (간호 62)

앵 커리지 알래스카에는 재적인원 9명의 이화동문들이 차로 20여분 내외 거리에 웅기종기 모여 삽니다. 평균연령 70세. 거대한 원시 침엽수림 덕에 늘 시원상쾌한 공기와 빙하 덕에 냉장된 듯 시원한 물맛 좋은 알래스카에 살아 오신 지가 평균 30년이나 됩니다. 새로운 후배가 오질 않아 가파른 고령화 지회가 되고 있지만 청정 환경 덕에 건강히 장수할 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알래스카 지회는 2000-2014 기간 동안 연회비 200불을 기초로 뉴욕국제재단을 통해 원금 일만불 적립을 완수했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연 일천불 장학금도 한인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제 모교의 후배들이 매해 장학금을 받고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니 거북이 걸음이지만 보람 되고 잘 운영하여 이익을 내주시는 국제재단 재정부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연로하신 회원이 많아 장학기금 만불 완수 후 2015년부터 지역사회 봉사나 연회비 없이 동문 경조사를 챙기고, 3, 6, 9, 12월에 친교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30-40여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 오신 76-80세 되신 지회원들의 소식을 나눕니다.

백도숙(영문 59): 70년대 앵커리지 한글학교 창립. 40년 알래스카대학 도서관 근무 후 은퇴. 지금도 PC USA



장로님으로 새벽 제단 쌓으시고, 최근엔 파타임 초등 학교 보조교사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르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김연순(화학 59): 인공관절과 암을 이겨낸 65%가 다민족 구성인 앵커리지에 동양자수 병풍 및 규방 소품들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실내외 화초들을 예쁘게 기르시며 사십니다.

김순명(교육학 60): 지역 한인 어머니 합창단을 창립하시고 후원하십니다. 디지털 기기가 일반적으로 보급될 때까지 한인 TV방송을 운영해 오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최다 & 최장기 한인회장직을 기록하신 남편 고 정원팔 박사님을 혼신으로 내조했고, 여섯 자녀들을 키우시면서도 어패류 캐기, 연어 낚시를 즐기시는 등 아웃도어 활동의 여왕. 교회 여름캠프 등 교육부서를 오랜 기간 담당, 봉사하셨습니다.

김명순(간호학 62): 종합병원 간호사로 40년 가까이 백의천사로 일하시다 최근 은퇴. 지금도 성당 성지순례 및 봉사, 북미와 세계 쿠르즈 섭렵 등 여행을 취미로 즐기고 계십니다. *

애틀랜타

회장 장명옥 (영문 81)

3 월 모임에서는 이화 130주년 기념모금에 관한 안내와 130주년 동창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고, 2015년도 총회 DVD와 CD를 각 1개씩 배포해 드

렸습니다. 6월에 있을 야유회에 대한 광고 (부회장 김경원 동창), 오랫동안 나오신 송신희(의학 54), 새로 나오신 김혜선(약학 75), 3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전원숙 동창과 함께 축하와 기념품 전달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대화 속에 진행된 식사, 그리고 임원진들이 준비한 빨간 딸기와 초록색의 포도알은 봄의 싱그러움을 더해주었습니다.

4월 모임엔 꽤 추운 날씨였는데도 3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선교부장 김순희 동창의 기도에 이어 5월 30일 이화창립 130주년 동창회에 관한 안내, 2016년 북미주지회 연합회(텍사스 휴스턴 11월 3일~6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애틀랜타 여성문학회' 이사장이신 정문자 동창께서 활동 내용을 소개하시며 문학에 관심있는 동창분들의 참여 권고, 여성문학회와 둘루스 문화원 주최로 열릴 음악회(6월12일) 등을 광고하셨습니다. 4월은 저희 지회가 '선교의 달'로 지정하고, 작년에 과테말라로 선교를 다녀오신 황성희 동창(유아교육 74)의 "어머니는 선교사"란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Mary Scranton 선교사로 인해 한국 여성 교육의 초석이 이루어지고 이화를 바탕으로 여성을 가르치고 일깨우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이 곧 선교사적인 역할과 사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테말라에서의 젓염소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황성희 동창께 선교 후원금 \$200을 전달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홍신옥 동창께도 선교 후원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나오신 구자은(영어교육 85), 민은정(통계학 07), 5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손수자 동창, 이렇게 세 분께 축하를 드리고, 5월엔 가정의 달로 모임이 없기에 6월 12일 야유회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전체 기념 촬영 후 폐회하였습니다. *



볼티모어

회장 조성주 (약학 61, 대학원 63)

볼티모어 지회는 춘계모임을 2016년 4월 30일 시내 식당에서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유미정(영문 93) 동문의 사회로 조성주(약학 61) 회장의 인사말, 식기도, 식사로 이어졌으며, 정성희(약학 74) 동문의 인도 하에 모교 교가를 제창하였다. 최영선(가정 66), 지명희(약학 71), 조성수(가정 72), 류명숙(미술 78) 등 역대 회장님들의 인사말이 있었고, 홍경주(약학 62) 이화국제재단 부회장 인사와 재단 활동 소개도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그외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총동창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를 소개하였고, 각 동문들의 소개와 회계 보고(이승숙, 불문 86) 등이 있었다. 정성희(약학 74) 동문의 진행 하에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회비로 \$1,000이 납부되었고, 많은 물품 도네이션도 있었다. 박인성(약학 61), 한경희(사학 61), 조원숙(약학 59) 동문이 떡을, 조성수(가정 72) 동문이 화장비누를, 그리고 조성주(약학 61) 동문이 facial scrub을 도네이션해주었다. *



보스턴

회장 박순혜 (국문 73)

햇살이 유난히도 밝은 날, 꽃봉오리들이 봄의 축제를 기다리는 4월, 보스턴 지회는 박순혜 회장님 덕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푸짐하고도 맛깔나는 음식들이 훈훈한 집주인의 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회장님 부군님의 부드러운 미소가 더욱 우리의 맘을 푸근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선후배, 동창들이 감탄사를 발하며 인사를 나누는 후, 서로 미국에서 살아 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직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각각 살아온 자리가 달랐지만, 진솔하게 어려웠던 과정과 또 기쁘고 보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쉽지만은 않은 현재 당면한 삶의 과제들을 나누며, 가슴 뭉클함을 느낀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민자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자신을 가꾸시고, 직장생활하시고, 또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뵈니 가슴이 뿌듯하도록 자랑스러웠습니다.

김흥혜 이사장님께서 예쁜 스카프를 염색해 오셔서 우리 모두 한 장씩 멋스럽게 걸치고 기념사진도 한 장 찰카했습니다. 모임마다 노래를 연습해서 동창들의 경조사에 가서 축하 위로를 해 드리자는 회장님의 의견에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2016년 11월 휴스톤에서 개최될 총동창회 광고, 그리고 개교 130주년을 맞는 모교방문에 대한 건, 주소록 update, 동창자녀 장학금, 해외동창 백만불 모금 등의 의제를 나

누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동창부부가 운영하는 뉴햄프셔의 소박한 캠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고향의 봄”노래에 맞추어 손운동을 배우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방도 즐기고, 다시 만날 6월을 기약하며 아쉽게 각각의 보금자리로 떠났습니다.
*

남가주

회장 장경해 (피아노 75)

2015년 12월13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LA에 위치한 Wilshire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1부 정기총회는 이보경(생미 80) 동창회 부회장의 사회와 이희숙(약학 62) 목사님의 기도로 진행되었으며 동창회의 2015년 행사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다. 2016년도에는 김주경(관현악 77) 전 이사장의 뒤를 이어 장계원(도서관 76) 현 동창회 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장경해(피아노 75) 현 부회장이 신임동창회 회장으로 인준되었고 신임이사장과 신임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박화자(간호 66) 남가주동문합창단 운영위원장께서 남가주합창단을 창립한 이숙현(가정 67) 동문님께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김봉덕(체육 60) 장학위원님이 비교적 젊은 동문들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과 식사 시간이 계속되었다.

2부 “이화인의 밤”은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흥겨운 사회로 진행되었다. 30여명의 이화여대 남가주 동문합창단의 합창, 윤승경(관현악 99)동문의 바이올린 연주, 이애숙(간호 76) 동문팀의 고전무용, 성기순(섬예69) 동





문 부부의 Ballroom Dance, 동창회 임원진들의 “행복합니다” 플래쉬몹 댄스공연이 있었다. 두 팀으로 나누어 다같이 참여한 년센스 퀴즈 풀기, 게임, 댄스 배우기 등을 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00년대 댄스곡 믹스에 맞춰 이윤주(체육 84) 건미회 회장의 리드로 오랜만에 학생 때로 돌아간듯한 흥겨운 댄스타임을 통해 어색할 수 있는 송년회가 신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래플 티켓 추첨으로 동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들이 나누어졌고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2016년 3월19일 장경해(피아노 75) 신임회장 댁에서 이사님들, 새임원과 합창단원 등 60여명의 여러 동문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푸짐한 점심식사와 함께 노래 연습도 하고 친목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여러 동문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원회에서 계획한 2016년도 행사계획

20여명의 새 임원진들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주소와 이메일을 업데이트해서 5월 동창회 회보를 발송하기로 했다. 리더를 선정해서 지역별 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보고와 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 행사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3월-5월 동창회주소와 이메일 업데이트해서 동창회보 발송
2. 4월 7일 민화그림 그리기 교실 개강, 2개월에 한번씩 만남
3. 5월과 11월에 연 2회 동창회보 발송
4. 5월 말에 남가주동문 40여명이 모교130주년 행사에 참석하며 남가주동문합창단이 합창을 연주

5. 7월 2일 “Summer Festival” 한여름 축제 파티
6. 8월 7일 모교 재학생 25명으로 구성된 ‘이화챔버콰이어’와 ‘남가주동문합창단’이 장학금 모금을 위한 합동 연주회
7. 10월 초 추석 한마당 잔치
8. 11월 3일-3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9. 12월 10일 정기 총회 및 송년모임

동창회 산하 각 부 활동 내용

동창회 산하에는 이사회, 합창부, 선교부, 녹미회, 건미회, 이음회, 골프부, O.C.모임, 이대배꽃회, 간호대, 사우스베이모임 등이 있으며 매주, 매달, 또는 일년에 서너번씩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맑은 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이화여대 남가주동문 합창단:

박화자(간호 66) 운영위원장과 고은주(영문 61), 송은섭(정치외교 57), 송정현(교육학 57), 안성욱(가정학 61) 동문들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합창단원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90세 김진현(체육 49)선배님은 후배들에게 건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멘토가 되어 주신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30여명이 모여서 합창연습을 하고 맛있는 점心和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있다.

2015년 9월 20일에는 “제11회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었다. 장경해(피아노 75) 단장, 엄인용(종교음악 72) 지휘자, 주희정(피아노 08) 동문과 30여명의 합창단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Flute과 Violin이 곁들여진 성가, 가곡, 민요 등 12곡을 불렀다. 6명으로 구성된 Ewha Vocal Ensemble의 연주, 유욱진(피아노 06) 동문의 피아노 독주, Tenor Solo, Trumpet Solo 등의 찬조

<p>1. </p> <p>3. </p>	<p>2. </p> <p>4. </p>	<p>김진현 (남가주지회, 체육 4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성환 동문(추후 체육과 학장)과 졸업식에서 2. 아펜셀러 선교사님/목사님, 김신실 체육과장과 졸업식에서 3. Local Magazine에 삽입된 것 3장 (Cover포함) 4. Good Samaritan Hospital에서 '자유의 종' 개막식에서 (남한의 흙 한 줌, 북한의 흙 한 줌, 미국의 흙 한 줌을 중에 넣어서 완성함) 5. 당시 James Hanh, Los Angeles 시장과 함께 <p>5. </p>
---	---	---

출연으로 다채로운 음악 Program이 진행되었다. 600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음악회를 마쳤다.

2016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창립 130주년을 맞는 모교 행사에 남가주동문합창단 34명이 참석해서 “남가주동문합창단 12주년 축제 행사”로 합창연주를 할 계획이다. 박신화(기독교문학 70) 총무, 안정화(성악 84) 지휘자, 주희정(피아노 08) 반주자가 수고를 할 예정이다. 모교 방문 중에 남가주동문들을 위한 4박5일 서해안 관광도 계획하고 있다.

2. 이사회: 2016년 3월 10일 상반기 정기이사회(이사장 장계원)가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서기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장경회 회장의 2016년도 남가주 동창회 일정 및 행사 계획발표 및 새임원 명단과 2015년 동창회 재정보고를 했다.

3. 선교부: 이수훈(화학 59)목사님 인도 하에 매주 수요일 12시-3시에 모임이 있으며 20여명이 모여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130여명의 동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캐나다, 모로코, 캄보디아 등 각지에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다. 선교부 부장은 조남화(간호 63) 동문이다.

4. 건미회: 이화여대 체육대학을 졸업한 동창들의 모임인 건미회는 2016년 1월에 이윤주(체육 84) 회장님 덕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따끈한 떡 만두국과 홈 메이드 음식을 나누며 새해 소망과 계획을 이야기했으며 4월 9일 (토요일)에 코리안 타운의 Caffe Concerto에서 2번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건미회 회장은 이윤주(체육 84) 동문이다.

5. 녹미회: 2016년 1월 9일 Muzeo Museum, Anaheim에서 "Verdant Beauty" 제4회 녹미전이 열렸다. 주류 사회에 첫 선을 보이며 거의 두달간 호평 속에 2주 연장 전시까지 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녹미전은 26분의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출품했다. 한국에서 8분, 처음 참여하는 로칼 아티스트들도 6분이 계셨다. 김영진 선교사님의 축하 기도에 이어 영 김 주하원의

원의 축하 말씀, 박물관장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깔끔한 핑거푸드와 핫사이다를 들며 덕담을 나눴다. 이대동창회와 선교회, 합창단에서도 많이 방문하여 축하해 주셨다. 그리고 "녹미전과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물지게 후원 사업"에 동참한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200명의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2016년 4월 17일에는 Brea에 소재한 Yeda Art에서 10여명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새 임원 및 새 회장을 선출했다. 녹미회 회장은 서정숙(생미 79) 동문이다.

6. O.C.모임: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박광순(기독교문학 64)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7. 간호대학모임: 2016년 1월 16일 간호대를 졸업한 30여명의 회원들이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신년모임을 가졌다. 김혜숙(간호 72)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8. 영락배꽃모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고 있다. 한영선 동문이 배꽃회장을 맡고 있다.

9. 민화 그림 그리기 교실: 성기순(섬예 69) 동문님의 지도 아래 2개월에 한번씩 모이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10불만 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남가주 동문의 특별활동

2016년 3월 31일 정효정(영문68) 동문이 미주한국문인협회와 재미시인협회가 후원하는 제2시집 <나는 여기 화석으로 피어서> 출판기념회를 용수산에서 했다. 정효정 동문은 “7순 고개를 넘어서 가는 생의 비탈길 연습해 오는 늙음과 죽음, 생의 고독과 허기, 이에 굴복하기보다 육신의 수레는 낡고 혈어가도 영혼이 디딜 길은 아름답게 채색하고픈 마음의 불씨 몇 줌 꺼내 부추어나마 시집을 엮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200여명이 참석해서 축하했으며 특별히 남가주동문합창단 30여명이 참석해서 축하 합창연주를 하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

14개 단과대학
인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음악대학, 조경예술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외국어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포츠대학

15개 대학원으로 성장한 이화

북가주

회장 광정연 (독문 76)



북가주 지회 동창회는 1964년에 발족되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동창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지역 성장을 위한 상호 교류, 모교 발전에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소록에는 350여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 30~40명 정도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월 생일을 맞이한 동창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동창회 산하 친목모임으로 합창단과 골프반이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동창들의 참여로 새로 건립하는 마곡병원과 신축기숙사 건립기금으로 일시불로 70,000불을 모금하였다.

2015년 12월 5일(토) 정오, 포스트 시티에 위치한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약 50여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모임 및 연말파티를 가졌다. 특별히 이 날 송년모임에는 동창회 합창단의 공연과, 지난 10월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때 텔런트쇼에서 일등을 차지한 뮤지컬 "팔쥐가 기가 막혀"의 앵콜 공연을 동창들에게 선보이며 선후배간의 우정, 모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2016년 1월 2일 (토) 병신년 새해를 맞아 San Jose에 소재한 한식당 산장에서 33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으며, 2월 6일(토)에는 Hillsborough 광정연 동

창대에서 32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모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동창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정기모임 회의를 마친 후, 선후배간의 덕담을 나누고 구정맞이 윷놀이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3월 5일 (토) Oakland에 소재한 한식당 오가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였다. 신입회장으로 광정연(독문 76) 동창이 선출되었고 지회연합회 이사회의 선출이사로 김성숙(법학 60) 동창과 최중자(사회학 62) 동창, 2명이 선출되었다. 그동안 많이 변경된 동창 주소록을 수정, 보완해서 새로 만든 새 동창회 주소록을 참석한 동창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동창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했다.

4월 2일 (토) 광정연 신입회장 댁에서 38명의 동창들과 새 회장단의 첫 모임을 가졌다. 광정연 신입회장은 "동창간의 인연은 일평생 동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동창간의 화목과 모교발전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참여하는 이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북가주 지회의 음악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나효신(작곡82) 동창과 이아람 동창(관현악 94)이 4월 2일, 3일 음악회에 대한 설명과 많은 동창들의 참석과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두 공연 모두 동창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나 온 길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여라"라는 간증집을 출간한 한애영(시청각교육 68) (필명: 이한나) 동창이 모든 동창들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

신시내터

회장 김영채 (영문 59)

작은 겨자씨 하나로 태어난 우리. Cincinnati 지회는 일년에 4회, 3월, 5월, 9월, 11월 둘째 주 금요일에 만납니다. 매년 동창회비를 서울 총동창회에 전달하고, 작년에는 4년간 "선배라면" 마지막 장학금도 국제재단에 전달했습니다. 2016년 모교 130주년 기념 "One Million Dollars" 기금모금에도 많은 회원들이 개인당 \$500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955-59년 평생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멋진 열매로 익어가던 4년간의 이화 기숙사 생활을 기억 하며 모교 기숙사 건축비로 김영채 회장께서 \$10,000을 기부

지 회 소 식

하셨습니다. 항상 이화의 교훈인 진, 선, 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겨자씨들입니다. *



신시내티에서 가장 큰 Kroger store의 벽화 황은신 (생활미술 70 대학원 72)

워싱턴 디씨

회장 김성혜 (건강교육 88)

2015년 12월 8일 Tysons Corner Marriott 호텔에서 80명 이상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2015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 총회에서는 회계보고 및 2015년 지회 활동 보고 후 김성혜 동문(건강교육 88)을 차기 회장으로 인준하였고, 김회장은 올해에도 Washington DC 지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교 및 총동창회와의 지속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창회의 목적인 친목과 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단체와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부 연말 파티에서는 최유정 동문(무용96)의 사회로 기금 마련 silent auction, line



dance, 가라오케 및 댄스 타임, 이화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연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명지 (영문 67) 동문이 이사장으로 윤향근(교육 82) 동문이 이사회 계로 선출되었으며, 이사회는 2015년에 4명의 후배들에게 \$10,000 장학금을 수여하고, 모교 기숙사 건립 후원금으로 10,000,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명지 이사장은 동창회를 돕고 모교활동에 주력하여 계속적인 장학사업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6년 3월 8일에는 동창회 주최로 포항공대 총장을 지내신 장수영 박사님께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미과학재단센터에서 역사 강의를 하셨고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37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강의와 점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2016년 4월 14일에는 지회 동문이 보내주시는 이사회비로 지급되는 워싱턴 DC지회의 이화국제 하계대학 장학금이 학교 성적 및 추천서 등에서 모두 우수한 Katherine Kashima, University of San Francisco와 Juhya Kim, Swarthmore College에게 수여되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서혜경(정의 90) 사회사업부 주최로 13명의 동문들이 Katherine K. Hanley Family Shelter를 방문하여 시설 견학 후 준비해간 점심식사를 서빙하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관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월 23일에는 이정렬(사회생활 61) 동문 자택에서 Sunshine Committee 주최로 80세 이상 되시는 동문들을 위한 Happy 80+ Party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기획된 이번 행사는 2015년 주소록 기준 총 45분의 올해 80세 이상이 되신 선배님들께 전화 및 초대장 발송을 통해 초청하였습니다. 작고하신 2분과 건강이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13분의 80세 이상 동문이신 윤순자(보육 39), 강서라(음악 49),

김복희(성악 49), 김정희(영문 50), 백경진(피아노 50), 이은옥(약학 52), 김영보(영문 56입), 이영숙(정외 58), 김영옥(정외 59), 윤경자(정외 59), 신복순(서양화 60), 이도실(영문 60), 이은숙(사학 60)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최유정(무용 96) 문화부장의 진행하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김복희 동문의 독창과 강서라, 백경진 선배님의 피아노 듀엣 퍼포먼스였습니다. 특히 많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도네이션 및 운전이 어려우신 동문들을 위한 차량 봉사등이 이루어져 아름답고 훈훈함 가운데 뜻깊은 행사를 성대히 마쳤습니다. *

멤버

회장 임은혁 (약학 72)



2015년을 떡국 모임으로 열고, 초여름과 가을의 피크닉으로 우애를 다졌습니다. 젊은 동문들이 게임과 라인 댄스를 준비하고, 동문 부군의 기타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면서 선후배들 모두 흥겨워 했습니다. “이화는 역시 막강하다”는 감탄을 자아낸 모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송년파티는 김정자 동문댁에서 30여명이 모였습니다. 정성이 담긴 푸짐한 음식과 강주영 동문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며 즐기는 등 참으로 은성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또한 젊은 동문 유치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12일 점심 모임으로, 김미연 동문의 부군 송선경 변호사께서 ‘유언장 작성’을 주제로, 그리고 임은혁(PharmD, BCPS) 동문이 ‘약과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2017년이 이화 약대 23회 졸업 45주년으로, 한국과 미국의 23회 약학과 동문들이 덴버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

에드몬톤

회장 조용옥 (국문 73)

벤쿠버와 토론토 사이에 있는 에드몬톤은 앨버타의 중심 도시로 한인이 13,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앨버타 수도는 에드몬톤으로 아직도 자연 그대로의 면모를 뽐내는 록키산 자스퍼의 정기를 받아 여러 이대 동문님들의 활동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유럽인 관광객들도 감탄한 록키산의 밴프가 4~5시간의 운전으로 갈 수 있는 행운과 지구 온난화에 제일 적응을 잘 할 것으로 예견되는 도시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63학번 영문과 조율리 동문은 두 번의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하여 에드몬톤 역사의 한 장에 기여했습니다. 63학번 교육학과 이유선 동문은 에드몬톤 장학회에서 회장으로 공정한 장학회 운영에 기여했고 앨버타대학 교수로 정년퇴직하여 현재 캐나다 사회에서 풀타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두 동문을 포함한 이화의 3인이 주축이 되어 BVC중창단을 만들어 5월13일 한시니어홀 홀에서 첫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65학번의 기독교학과 김정자 동문은 4년간의 에드몬톤 노인회 회장 부군을 돕는 숨은 봉사자로 에드몬톤 이민 역사책 출간에 공헌했습니다. 동문회모임에 차편이 없을 때



자신하여 선배님을 모시고 다니는 후배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우정을 볼 수 있음에 기쁘고, 부동산업계에서도 활동하는 젊은 동문님, 사모님으로 이민사회에서 힘들게 목회 봉사하시는 이화동문들, 모두가 자랑스럽고 이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

하와이

회장 이해련 (영문 84)

저희 하와이 지회는, 하와이 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꾸준히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5일에 간호대학 관계자들의 초청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몇몇 동문들이 간호대학을 방문하여 학장님이하 관계자들의 환영속에 학교를 시찰하고 장학금 수여자와의 만남도 가져 우리의 장학금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10월 6일에는 하와이 미술관에서 현재 전시 중인 한국의 은은하고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도자기들을 한국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단체로 관람, 감상하는 뜻깊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12월 4일 시내식당에서 정기 겨울 동창회 모임이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해련(영문 84) 동문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어 부회장인 홍승혜(사회사업 90) 동문과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해련 동문과 홍승혜 동문은 현재 하와이대학교에서

교수로 (Department of Communicology와 사회사업과) 재직 중에 있습니다.*



휴스턴

회장 김명옥 (경영학 75)

2016년 북미주지회 연합회총회 (11월3-6일)가 휴스턴에서 있습니다.

휴스턴 지회는 1989년 김옥길 총장님의 휴스턴 방문 때 발족되었습니다. 회원수가 90명 정도인데 모임에 참가하는 동창은 15-20명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6, 7, 8월을 제외하고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올해는 총회 준비로 방학이 없이 자주 모임 것입니다.



2015년 9월: 정미선(수학교육 85) 동문님께서 2016년 총동창회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11월에 휴스턴에서 열리는 동창회 총회를 위한 후원금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Atlanta 총회에서 보일 talent show 준비로 자주 모여 연습을 했습니다.

11월: 2016년 11월에 휴스턴에서 열리는 총회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여러 동문들이 Atlanta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2월: 박영일(의류직물 72) 동문덕에서 연말파티를 가졌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Best Dresser를 뽑고, 즉흥적인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6년 1월: 손에 손을 잡고 총회 준비를 위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성혜(도예 84) 동문덕에서 떡국을 함께 먹으며 동문간의 단합을 다졌습니다.

2월: 16년째 연례 행사로 해오고 있는 한국노인회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잔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만한 음식들을 동문들이 각자 손수 만들어 대접을 하고 노래와 춤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3월: 1830년대부터 4대에 걸쳐 상속된 George Ranch Historical Park를 방문하여 너른 풀밭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4월: 휴스턴 동포 자녀 2명에게 전달할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garage sale을 했습니다.

5월: 기독교인으로 여성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진취적인 열정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 2명에게 각 \$1,000씩 전달했습니다. *

미네소타

회장 김성숙 (사회학 85)

2015년 9월 St. Catherine University에서 열린 서은경 동문(영문 91, Duluth에 소재한 University of Minnesota의 Fine Art 교수로 재직 중)의 전시



회에 많은 동문들이 관람했다. 서은경 동문은 7월에도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한 바 있다. 10월 2일에는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미술관에서 모임을 갖고 풍요로운 가을을 즐겼다. 12월 11일에는 리스챔피언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김정은(체육 90) 동문의 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편안한 복장으로 태권도 사범인 김동문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과 태권댄스를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운동 후, 중국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동창회에 처음 나오신 홍선화(약학 66) 동문을 환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졌다. *

뉴욕

회장 박영숙 (경영 86)

11월 8일 제 51주년 연례만찬이 뉴저지소재 Double-Tree Hotel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성남 이사장의 기도로 시작한 만찬은 김기령 회장의 인사에 이어, 박문순 장학위원장이 뉴욕지역 장학금 I 을 대학 재학 교민 중에서 선별된 2명에게 각각 \$2,000 씩 수여하였고,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창에게 수여하는 뉴욕장학금 II \$3,000의 수혜자가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같이 교가 제창으로 1부 순서가 끝나고, 애틀랜타에서 있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녹미회 전시회, 모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숙사 기금마련 등의 광고가 있었다. 2부에서는 86년 졸업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Up-town Funk / 내 나이가 어때서" Dance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이어서 각각의 연령을 대표하는 커플들이 나와서 '풍선 불기'로 부부애를 과시하는 게임, Raffle시간 등으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하신 모든 동창들의 단합 댄스 시간에는 역시 이화 인이라는 감탄이 나올



만큼 열정적으로 대선배님들과 후배들간에 춤을 통해서 격의없는 만남의 장이 연출되었다. 연중 한번의 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확인한 동창들은 다음 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12월 4일: 2015 연례만찬 평가회를 겸한 임원회가 수고하신 분들을 모시고 최성남(약학 70) 이사장 댁에서 있었다. 연례 만찬에 대한 자체 평가회의를 겸한 모임으로,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동창회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함께 나누었다.

2016년 1월 28일: 맨해튼 소재, 한국회(법학 80) 동문의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있었다. 2016년과 2017년에 일할 임원과 북미주총회 선출이사 지명이 있었다.

3월 8일: 정기총회가 맨하튼에서 있었다. 2년 동안 뉴욕 동창회를 위해 애썼던 김기령(영문 82)의 동창회 전반에 관한 설명과 퇴임식에 이어 신입 박영숙 회장 인사 및 새 임원 소개가 있었으며 권혜경(정외 94) 동문의 “트라우마, 심리치료에 관한 Q&A”가 있었다.

4월 6일: 맨하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맨하튼 지역모임’이 김석란(영문 85) 동문댁에서 있었다. 다가 올 동문모임에 관해 토론한 후, 수술시 하게 되는 마취에 관한 Q&A를 조연(약학 61) 동문의 따님인 Dr. Mary Min / Anesthesiologist가 해주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4월 12일: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UN에서 본교 공공 외교센터의 조기숙 교수가 공공 외교적인 관점(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SNS가 주요 소통의 도구가 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끌어내고 실천해 갈 것인가를 오준 UN 대사, 한충희 UN 차석대사를 비롯한 10명의 패널을 통해 조명해 본 유익한 시간에 뉴욕동창도 참석하였다.

4월 20일: 맨하튼에서 2016년과 17년,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의 모임이 박영숙(경영 86) 신입 회장의 초대로 있었다. 올해 동창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인 북미주총회준비와 제반 행사에 관해 각자 임원의 역할을 새기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 *

포틀랜드

회장 김미진 (도예 79)

1 월에 신년 하례모임으로 오랜만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은 한명숙(영문 56입) 동문과 서울에서 교환교수로 온 유수옥(유아교육 77)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모교에서 보내온 소식지와 빨간 동창수첩을 모두 손에 쥐고 잠시 향수에 젖기도 하였으며 최근 교정의 변모를 담은 사진을 보며 예전의 교정을 추억하였다. 오랜만의 만남이다 보니 그동안의 이야기로 화제의 꽃을 피우느라 3시간이란 시간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포틀랜드 지회는 현재 15명 정도의 동창이 적극적으로 동창회의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숨은 동창 찾는데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으며 회장은 현재 병중의 동창이나 동창들의 가족의 대소사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그룹을 잘 진행하여 4분기의 동창회를 보조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6월 초에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여 근교에 하이킹을 하기로 하였으며 100세 시대에 맞추어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하면서 가능하면 모두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회장의 말에 모두 입을 모아 "네" 하고 대답하면서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

오타와

회장 한영아 (도서관 85)

오타와 지회는 매년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작년 총회에서는 2년마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을 비롯해 새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결속을 다지며 1년간 행사와 모임을 지속해 왔다. 그간 약 두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가족의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를 전후해서 별도의 축하와 위로의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엄경자(약학 67) 동문은 캐나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동문회원들은 엄 동문이 마련한 특별 오찬에 모여 삶에 귀감이 되어준 엄경자 동문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1년간 동문 자녀 중 결혼을 한 경사도 있었지만 애사(哀史)도 유난히 많았다. 5명의 동문 가정에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의 장례가 있었다. 이국에서 겪는 슬픔은 더 안타깝고 크지만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오타와는 지역 특성 때문인지 회원의 이동이 잦았는데 전영남(약학 61), 진미영(행정학 93) 조수진(독어독문 04) 동문이 오타와를 떠나게 되어 송별 모임도 가졌다. 그러나 오타와 동문회는 오타와를 떠난 동문들과도 계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으로 귀국한 동문들은 재경(在京) 오타와 이화동문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모일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보다 남에게 더 유용한 물건, 내게 너무 소중한 것 나누고 싶은 물건”을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는 “모임과 나눔”을 실천했다. 책, 악세서리, 화장품, 옷, 소형 가전제품, 운동기구, 깃털 모종 등... 갖가지 물품이 기증되고 새 주인을 찾아 가면서 모인 기부금은 한국의 미혼모들을 돕는 여성단체에 전달되었다.

지난 송년 모임에서는 기도와 합창 그리고 모두의 한해를 돌아보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갖고 즐거운 성탄절 게임과 캐롤로 소박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5월 14일, 엄경자(약학 67) 동문관에서 2016년 총회를 열고 오타와 동문회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 *



이화의 여름

시애틀

회장 문혜현 (도서관 74)

시애틀 지회는 1972년에 시작되어 40여년 동안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동문들간에 우애를 다지고 경조사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동문회 행사는 다음과 같다.

- 1월: 장숙렬(생물교육 60) 동문의 기도로 교가 합창, 전년도 임원진에 대한 감사와 새 회장 소개를 했다. 매년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어 학과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Ms. Casey Lindberg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3월: 조선용(건강교육 88) 동문이 강사로 나와 Medicare 와 Obama Care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 5월: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하여 Twin Falls Trail에 모여 등산을 했다.
- 6월: 이미정 박사를 모시고 Hormone 치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 8월: O'Denny Park (Kirkland)에서 4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바베큐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매년 여름 야유회를 위하여 리아 암스트롱 고문과 오혜숙 고문께서 꾸준히 지원하고 계신다.



9월: 신경림(장식미술 80) 동문 자택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가졌다. 바자회 물품으로는 만두 1,200개, 빈대떡, 각종 김치, 돈까스, 유기농 피클, Eye Pillow, Tummy Warmer, Organic Lavender, 책, Table

Mats, 유기농 치자, 백제 토기, 서예가 백현수 목사님의 서예작품 등이 있었으며, 동문들의 협조로 많은 기금을 모았다.

12월: Double Tree Hotel에서 2015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많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과 지회 합창단의 '어느 10월의 멋진 날'을 부르면서 2015년을 마감하였다.

***각 부서 활동으로는 골프부, 동양화부, 그리고 사진부 등이 있어 활발한 모임을 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회장 정선주 (성악 68)

저희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발족한 지 19년으로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모교에서 인정하는 '북미주 이화여대 총동창회 지회 연합회' 소속으로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선후배들이 이화 자매의 정을 돈독히



하고 이화 진선미의 교훈을 생각하며 모교와 모교 동창회를 위해 작은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계'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 정기모임은 일년에 4번 있습니다 (3월, 5월, 10월, 12월).

그동안 동창회 임원은 초대회장: 조련순(영문 60), 서기: 안성은(영문 90), 회계: 최경선(영문 61), 전이사장: 김귀현(영문 56), 전 회장들: 정선주(성악 68), 김혜영(간호 79), 정흥순(성악 62), 양혜자(교육 74, 76) 등이 있으며, 현 회장단으로는 이사장: 최경선, 회장: 정선주, 서기: 최길자(화학 65), 회계: 이수자(가정 63) 등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57차 정기모임 겸 선재숙(의학 72) 동문 'Speedy Award' 축하모임을 시내 중국 음식점에서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이화여대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 소개와 대외협력처에서 보내준 모교 수첩과 달력 등 선물에 감사하며, 모교 130주년 기념모금, 기숙사 건축 기금, 그리고 해외동창기금 등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휴스턴에서 열리는 연합회 총회와 국제재단 총회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또한 2016년 스피디 어워드 수혜자로 선정된 선재숙(의대 72) 동문 축하모임을 겸하였습니다. 이 상은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가 제정한 최고의 상으로 57년부터 상이군경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PVA 회원 한 명, 비회원 한 명을 선정해서 수여합니다. 과거 수상자 중에는 케네디 대통령,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펄크 박사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 이 상이 제정된 70년 역사상, 의사가 이 상을 받은 사람은 24명 뿐이었고,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동문이 수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큰 경사였습니다. 동창들이 준비한 축하 케익을 같이 맛있게 먹고, 모로코 여행에서 돌아오신 최길자 동문이 우리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귀여운 선물을 나눠받고 돌아왔습니다. 화창한 봄날, 배꽃의 향기는 은은히 풍기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우리 이화”

저희 지회는 해마다 모교 선교부에 \$100을 보내고, 세인트루이스 지회 장학기금으로 올해도 이화 국제재단에 \$500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화국제재단에 현재 \$13,000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500) 해외동창기금을 완납하고, 2번째 해외동창기

금을 약정해서 우선 \$100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 후원으로 한인회 장학기금과 게이트 웨이 재단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

북텍사스

회장 강정숙 (교육심리 63)



저희 북텍사스지회는 지난 2015년 5월 강정숙 회장과 윤경원 부회장님 등 새 회장단을 선출하여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0명 내외의 동문님들이 달라스를 중심으로 Killeen, Waco, Austin 등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달라스에서 격월로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대 간호대학이 달라스의 TWU (Texas Women's University)와 MOU를 체결하였고, 2주간 Global Nursing Program에 참석한 이대 이경원 교수와 학생 12명을 달라스지회에서 초청하여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화의 어느 오후

토론토

회장 홍석미 (영문 79)

토론토지회는 2015년 8월 22일 St. Andrew Valley Golf Club에서 열린 토론토 주재 대학 동문 골프 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이를 위한 준비위원들과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봉사와 협조로 총 16개 대학에서 125명의 선수가 참여한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홍보출판부에서는 2016년 새로운 주소록을 발행하였으며, 10월 29일 부터 11월 1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7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2일 연말 파티는 각 분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화인들이란 주제로 'The Starry Night'이 열렸습니다. 최경희 총장님의 토론토지회를 향한 인사말씀도 전하며 2016년 신입회장 선출과 다양한 퍼포먼스와 게임 등의 2부 순서로 160여명의 이화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새로 구성된 임원들의 회의에 이어서 2016년도 3월 7일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45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회계보고와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새 임원들의 소개, 2016년도 활동계획과 동호회 소개가 있는 후 작년 3월 정기총회에서 부결되었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 사항이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어 많은 토의 끝에 2018년도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를 토론토에서 개최하기로 통과하고 그 결과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이

어가는 토론토 지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4차례 햇불회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골프, 걷기, 화음, 글벗 동호회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동문들간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창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새롭게 배꽃가야금 교실을 열게 되어 우리의 국악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 야유회, 이화 가족 골프대회, 연말파티 등의 모든 행사에 해마다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나날이 즐거움을 더해가는 토론토 지회입니다. *

밴쿠버

회장 김희연 (가정관리 71)

2015년 7월 18일 밴쿠버의 관광 명소 중의 하나인 퀸 엘리사벳 공원에서 동문 가족들의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화창한 여름 날씨에 생 썬채소, 해물부침개 및 갈비살 바베큐를 나누고 김경숙 동문의 기타 반주로 교가를 비롯한 흥겨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보낸 가족 모임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9일에는 추석 모임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한정식으로 식사를 나누며 한국의 추석 모임을 즐겼습니다.

2015년 12월 6일에는 밴쿠버 골프 클럽에서 부부 동반으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지난 2015년을 무사히 지낸 동문들에게 2016년에도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 모임이었습니다. 푸짐한 경품을 나누고 흥겨운 가락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는 구정과 대보름을 기리며 또한 금년에 팔순을 맞으시는 세 분의 동문(여정구, 조남순, 이윤재)을 축하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동문들께는 동문회에서 아름다운 난 화분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맛있고 푸짐한 식사와 율놀이도 즐기고 흥겨운 노래가락에 화기에애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4월 2일에는 한국과 캐나다 문화사업 교류재단 주최의 새 봄 음악회에 우리 동문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소프라노 방장연(성악 85)의 "신아리랑"을 시작으로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인가" 등 총 6곡을 열창했으며, 피아노 반주는 홍승도(피아노 85) 동문이 맡아주었습니다.

2부 공연에서는 방장연 동문과 윤계은(국악 92) 동문이 박혜정(관현악 82) 동문이 지휘하는 뮤즈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2부 공연 중에 발표된 "꿈배를 띄우자"는 박혜정 동문이 작곡한 곡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또한 박혜정 동문이 작곡한 "지구마을"이라는 곡도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박혜정 동문이 지휘하는 뮤즈 청소년 교향악단은 음악을 통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교량 역할을 하며 한국을 주류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혜정 동문은 또한 2세들에게 한국의 얼을 심어주기 위하여 밴쿠버 한국어학교에서 한국 동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는 동문들의 문화적 활동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꽃바구니를 선물하였습니다. *



제26회 서울시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이대캠퍼스 복합단지 ECC'



동창회 장학금 소식 (2015년)

1.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되는 지회별/동창 그룹별 장학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2015 지급액	2015 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10,000	선다현 (독어독문학 2) 외 3 명
뉴욕 지회	\$25,000	이서연 (중어중문학 4) 외 9 명
디트로이트 지회	\$10,000	윤우정 (물리학 3) 외 3 명
북가주지회	\$10,000	이새롬 (경제학 3) 외 3 명
시애틀 지회	\$2,500	홍이정 (국제학 2)
워싱턴디씨 지회	\$10,000	은소소 (역사학 3) 외 3 명
워싱턴디씨 국제하기대학	\$700	Jesus Garcia
휴스턴 지회	\$10,000	류지은 (경영학 3) 외 3 명
보스턴 지회 ('15 신규)	\$2,500	안해님 (특수교육학 2)
클리브랜드 지회 ('15 신규)	\$2,500	김경영 (방송영상학 4)

그룹별 장학금 이름	2015 지급액
LA 영락교회 배꽃회 장학금	\$2,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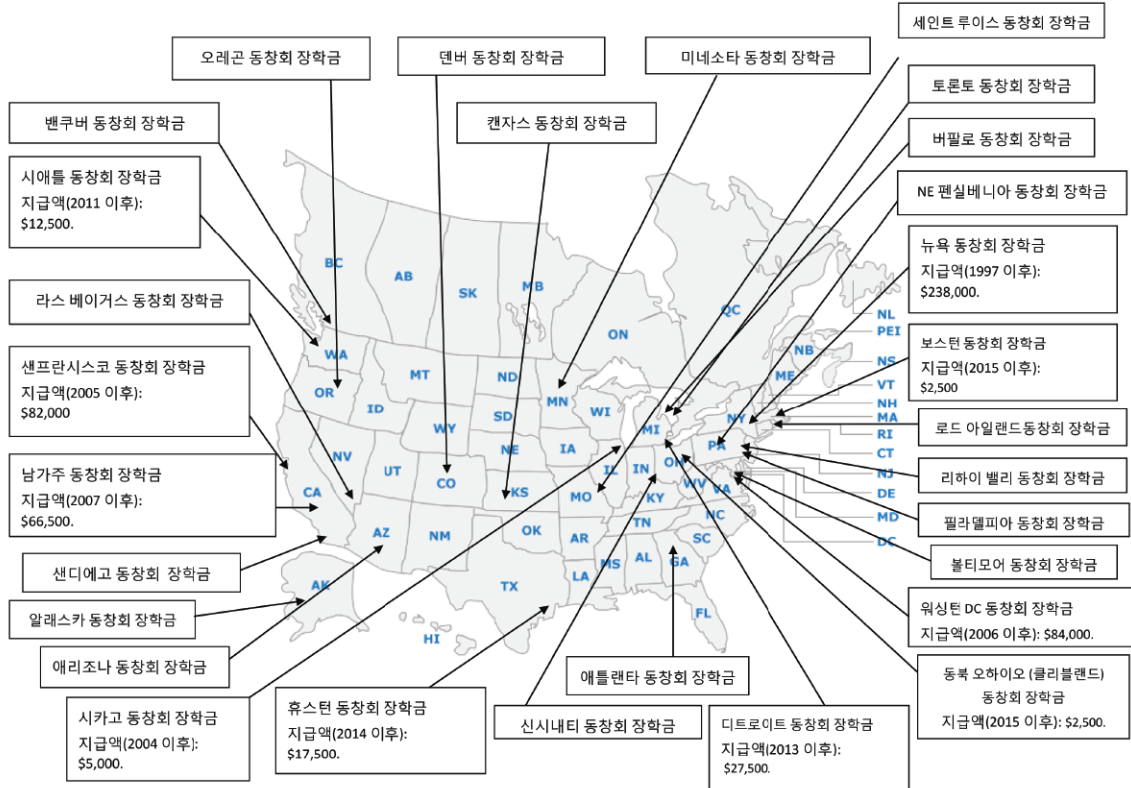
2. 각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회별 장학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대상	지급액 (\$)	수혜자
남가주 지회	동문 자녀	\$3,000 (3 명)	Min Sup Kim, Sean Nam, Patty Jeon
뉴욕 지회	지역 교포 자녀 대학생	\$4,000 (2 명)	Naye Lee, Ji Min Son
	이대 졸업생으로 대학원생	\$3,000	Jenny Jyoung Lee
밴쿠버 지회	동문 or 동문 자녀	\$1,000	
보스턴 지회	동문 자녀 대학생	\$500	Eunice Roh
시애틀 지회	U. Washington 한국어과 학생	\$1,000	Casey Lindberg
애틀랜타 지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통해 11 학년-대학원생	\$1,000	하승우
휴스턴 지회	남부 Texas 동포 자녀 여학생 (12 학년 - 대학원생)	\$2,000 (2 명)	김예진, 박지수

지역별 모교 지원 장학기금 현황 (2016년 Summer 지급액 포함)

총 29 개의 지회가 모교 지원용 장학기금을 이화국제재단에 설립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목표액에 이른 지회의 기금에서는 원금에서 얻은 수익으로 매년 모교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장 명단 (State/지회명 순) 2016년 5월 현재

지회명	지회장 이름	졸업 학과 및 연도
Houston, TX	김명옥	경영 75
Alaska	김명순	간호 62
Arizona	김은미	교육공학 89
N. California	곽정연	독문 76
S. California	장경해	피아노 75
San Diego, CA	연혜정	
Denver, CO	임은혁	약학 72
Orlando, FL	신혜	섬유예술 92
Atlanta, GA	장명옥	영문 81
Hawaii	이혜련	영문 84
Chicago, IL	성유나	영문 79
Kansas, KS	강명숙	제약 74
Boston, MA	박순혜	작곡 77
Baltimore, MD	조성주	약학 61
Detroit, MI	박정란	교육심리 85
Lansing, MI	조미영	동양화 85
Minnesota, MN	김성숙	사회학 85
St. Louis, MO	정선주	성악 68

지회명	지회장 이름	졸업 학과 및 연도
Las Vegas, NV	최계자	신문 65
New York, NY	박영숙	경영 86
Cincinnati, OH	김영채	영문 59
Cleveland, OH	김영미	영어교육 82
Portland, OR	김미진	도예 79
Allentown, PA	김여흠	영문 54
N.E. PA, PA	김영화	가정관리 76
Philadelphia, PA	김선주	국문 72
Rhode Island, RI	이길자	의학 66
Nashville, TN	이명애	의학 76
Northern Texas	강정숙	교육심리 63
Washington DC	김성혜	건강교육 88
Seattle, WA	이혜현	도서관 74
Edmonton, Canada	조용옥	국문 73
Montreal, Canada	이채화	무용 76
Ottawa, Canada	최영아	문헌관리 85
Toronto, Canada	홍석미	영문 79
Vancouver, Canada	김희연	가정관리 71

장학기금 현황 / 지회장 명단

2016 북미주총회 일정

2016년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Hilton Houston Post Oak

11월 3일 (목요일)	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총회 등록 시작
	8:00 pm - 10:00 pm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

11월 4일 (금요일)	7:00 am - 8:30 am		아침 식사	
	Tour 가시는 분	9:00 am - 4:30 pm	택일	Museum Tour (Science & Fine Arts)
				George Ranch Historical Park 방문 BBQ Lunch
	Tour 안 가시는 분	9:30 am - 10:30 am	요가, 스트레칭	
		3:00 pm - 4:00 pm	건강 세미나	
	4:30 pm - 5:30 pm		합창 연습	
6:3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Talent Show		

11월 5일 (토요일)	7:00 am - 8:00 am		아침 식사	
	8:00 am - 10:00 am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Tour 가시는 분	10:00 am - 4:30 pm	NASA 방문	
			Tour 안 가시는 분	10:30 am - 11:30 am
	미용 세미나 (강사 및 일정 조율 중)			
	2:00 pm - 4:00 pm		Silk Scarf Knots	
	4:30 pm - 5:30 pm		합창 연습	
6:30 pm - 10:00 pm		Grand Banquet 기조 연설 연합회 합창		

11월 6일 (일요일)	7:00 am - 8:30 am		아침 식사 (총동창회 제공)	
	8:30 am - 9:30 am		예배	
	9:30 am - 11:30 am		총장님과의 대화 작별 인사	

"저녁은 날의 꿈과 패기를 추억하며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2016년 11월 3일 (목) - 11월 6일 (일) Hilton Houston Post Oak

- EWHA HOUSTON 2016 참가 신청서 -

이름	한글	영문	
소속 지회			
거주지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Home Phone		Work Phone
	Cell Phone		Email
졸업 학과			졸업 연도
동행자 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 날짜	행사 내역	참가비	인원수	합계
총회 참가 등록(8월 31일 전에 등록하시면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20		\$
11월 4일 (금)	택일 Museum Tour (Science & Fine Arts)	\$70		\$
	George Ranch Historical Park 방문 (BBQ lunch 포함)	\$70		\$
	총장님과의 만찬	\$100		\$
11월 5일 (토)	NASA 방문	\$70		\$
	총회 만찬	\$100		\$
총회 참가비 총액				\$
신청서 및 참가비 신청 마감 9월 30일	신청서와 함께 개인수표 또는 Money Order 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Payable to :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Mail to : Jeehye Han, 1014 Finn Grove Ln., Houston, TX 77094 Contact: 김명옥 (회장 832-859-1520) 구희경 (총무 713-306-5389) ewhahouston2016@gmail.com			
호텔 예약 마감 9월 30일	Hilton Houston Post Oak (www3.hilton.com) Address: 2001 Post Oak Blvd., Houston, TX 77056-4401 Dates : 11월 3일 (목) - 11월 6일 (일) Rate (조식포함) : \$129/night (2인 1실), \$139/night (3인 1실), \$149/night (4인 1실) Group Code : EWUR Online Reservation: Hotel website 에서 날짜, 명수, add special rate codes 중 Group Code (EWUR) 를 기입하시면 예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Contact : (713)961-9300 (713)968-1346 GroupServices@Hilton.com Transportation (공항↔호텔): 하나로 리무진 (832-804-9591), Super Shuttle (877-215-9262)			
Caribbean Cruise 총회 직후 출발	Dates: 11월 6일-11월 13일 (7박 8일) Departure : Houston 에서 차로 45분 거리인 Port of Galveston 에서 출발 Rate : \$697.45부터 시작 (뒷면 광고지 참조) Deposit : 2016년 6월 15일까지 \$250 Deposit (Limited space) Contact: 차승순 동문 (517-937-8801)			

2016 총회 참가 신청서

EWHA Friends and Family Cruise

November 6th-13th



Cruise Itinerary:

Date	Port Location	Arrive	Depart
06NOV	GALVESTON, TEXAS		4:30PM
07NOV	CRUISING		
08NOV	COZUMEL, MEXICO	7:00AM	4:00PM
09NOV	GEORGE TOWN, GRAND CAYMAN	10:30AM	6:00PM
10NOV	FALMOUTH, JAMAICA	8:00AM	5:00PM
11NOV	CRUISING		
12NOV	CRUISING		
13NOV	GALVESTON, TEXAS	7:00AM	

Price is per person based on double occupancy: (inc cruise fare, taxes & fees)

- \$ 697.45 Interior Stateroom
- \$ 834.45 Ocean View Stateroom
- \$1250.45 Balcony (subject to change)

Liberty of the Seas

Travel insurance optional.

Deposit Due: \$250.00 per person by June 15, 2016 (Limited space; First come, First 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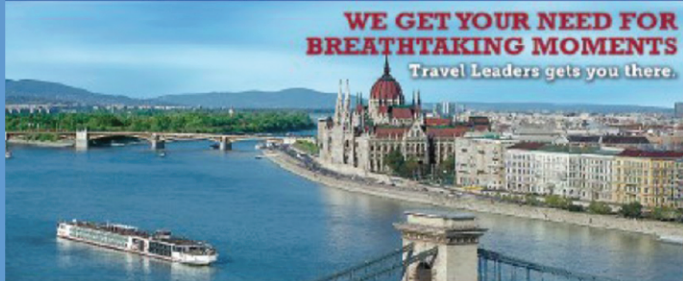
Final Payment Due: July 15, 2016

TRAVEL LEADERS®

Sue Konarska (Seungsoon Cha'70) Travel Leaders
2451 W Stadium Blvd, Ann Arbor, MI 48103 • 734 827-1030 Office • 517-937-8801 Cell
Sue.act@travellers.com

차승순여행사

TRAVEL LEADERS®



WE GET YOUR NEED FOR BREATHTAKING MOMENTS
Travel Leaders gets you there.



Connect with an Agent

Let us navigate through the complexities of travel planning.

여행도 이제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시대입니다.

- 크루즈 여행 전문
- 하와이, 유럽여행 패키지
- River and Canal Cruising

후회없는 멋진 추억의 여행을 위해



EMAIL : SUE.ACT@TRAVELLEADERS.COM

2415 W. Stadium Blvd. Ann Arbor, MI 48103

734.827.1030



Garden Suite Hotel & Resort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Sook Hyn Lee / 이 숙 현
President

Tel. 213.383.0000
213.381.6000

Fax 213.383.3882

Email info@gardensuitehotel.com

하나로 콜택시 HANARO LIMO SERVICE



- ✓ 공항픽업 / 라이드
- ✓ VIP 리모 서비스
- ✓ 골프투어
- ✓ 카지노 라이드
- ✓ 일일관광투어
- ✓ 대리운전

예약문의 **832.804.9591**

24
HOURS

www.hanarocalltaxi.com

hanarolimo@gmail.com

10036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한인이 운영하는 전기회사



1-877-839-7657

한국인 담당 김지은을 찾아주세요



www.TexpoEnergy.com

www.YepEnerg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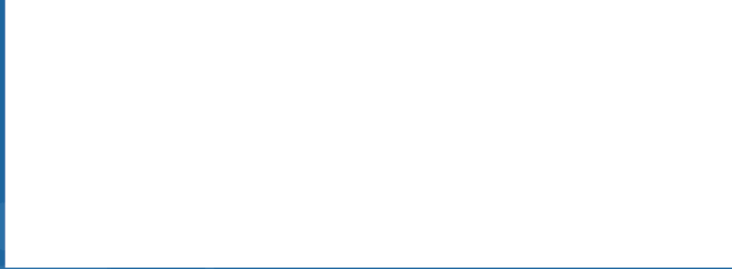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Chapter of Houston
Attn: Grace Myung Lee
1126 Sugar Creek Blvd.
Sugar Land, TX 77478
Email: ewhahouston2016@gmail.com

PRESORTED
U.S. POSTAGE
PAID
HOUSTON , TX
PERMIT NO. 542

CHANGE SERVICE REQUESTED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Since 197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은 IRS 501(c)로 등록되어 이화여자대학교를 후원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내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국제재단에는 110여개의 개인 장학 기금, 28개의 북미주 각 동창지회 장학 기금, 전공별 기금, 이화 해외 동창 기금, 추모 기금, 부부 성함으로 이루어진 장학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 이화 후배들의 학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기금, 영구적 기금, 유언을 통한 사후 기부 등 자세한 기금 종류와 후원 방식은 국제재단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475 Riverside Drive, Room 1505, New York, NY 10115
Tel. 212.864.5759 / Fax 212.864.2552 / ewhafdn@gmail.com
www.ewhafoundation.org

편집위원장 : 구희경
편집위원 : 백화정 신지혜 정선은 권영미 양정화 민정원
표지디자인 : 유민정
디자인 : 김미정 부군 강원웅